

# 슬픈 목련



양 정 자  
〈서울시 城北區 정릉4, 289-14〉

내일이면 맞선을 보는 날 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기실 들떠 있기는 그보다 훨씬 전 부터였다. 집에 몇 번 선을 볼때마다 내키지 않아 하다가 마지 못해 나가곤 했던 경우에 비하면 이번엔 확실히 다른 것이었다. 상대는 우리가 나가던 교회 권사님의 막내 아들로써 서울에서 공과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어느 재벌 그룹의 회사에 다닌다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들었을 때 한참 후에 언니의 기억 속에는 하얀 목책이 둘러지고 문간의 장미가 꿈던 이층집이 떠올랐고 그집에서 자라던 얼굴이 희고 단정하던 소년의 모습이 떠올랐던 것이다.

교회의 관사가 가까운 곳에 있던 권사님네 백은 예나 이재나 늘 찬송가와 웃음이 흘러 나오는 단란한 집이었고 그집이 막내로서 근동에 이름난 수재 소년이었다. 그 중학생은 그당시 언니 나이 또래의 선망이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중학을 마치고 고향을 떠난지 10년이 훨씬 지나 이제는 훌륭한 청년이 되었을 옛날의 그 소년과 인연이 닿아서 인니와 혼담이 오가기에 이르는 것이었다.

“정자야, 그렇게 잘 생기고 머리 좋은 남자가 정말

도회지에 애인이 없었을까.”

잠자리에 들면 언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곤 했다.

“언니에게 칭찬하기 위해서 혼자 지냈는지 모르지 될.”

내가 그렇게라도 얘기하면서 슬쩍 보면 언니의 얼굴은 금방 주홍빛이 되어 버렸다.

“나 같은 게 뭘…… “그러면서 돌아눕다가도 금방 다시, “선 보는 자리에선 잘 해낼 수 있을까?”하고 불안한 목소리로 되물기도 하는 것이었다.

“언니가 어때서? 미인이고, 마음똥고, 언니를 데려가는 남잔 복덩어릴 가져 가는 것이라고.”

그러나 맞선 날이 다가 올 수록 언니는 안절 부절을 못하였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방안에 틀어 박혀 있어서 궁금하여 문을 열어 보면 예의 없이 화장을 지우고 다시 하고 또다시 지우고 다시 서른번쯤 고치고 하는 것이었다.

이럴 땐 “예쁘니?”하고 꼭 나를 바라 보는 것이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워서 어둑신한 방마저 환할 지경으로, 나는 속으로 탄성을 지르곤 하였다. 그 눈부신 자태는 그대로 한 떨기 목련 꽃을 닮아 있

었다. 그러나 “예쁘니?”하고 물어 보일 때에도 언니의 미간에는 불안과 수심의 그늘이 어리어 있었다.

“응, 예뻐. 그 기수라는 분 틀림없이 언닐 좋아할 걸.”

호들갑스럽게 말하곤 했지만 나역시도 마음속의 일말의 불안은 지워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맛선을 보기 전날이었다.

힘들어서 한 화장을 북북 지워버리더니 언니는 냉소하듯이 불쑥,

“그 남자 다리가 하나 병신이었으면…”

하고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깜짝 놀라 쳐다 보았더니 “아니면…, 머리털이 하나도 없는 대머리래도, 아니 차라리 성불구자 같은 거라도 좋겠어…”하며 거침없이 말해 버리더니 키득 키득 웃는 것이었다.

나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몰라서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언니는 다시 장롱문을 열고 옷가지를 이것저것 챙기기 시작했다.

“어떻게 좋아 보이니?”

옷을 몸에 대 보며 물었을 때 나는 그만 얼굴에 실수를 하고 말았다. 그리고 그것이 언니의 아픈 곳을 무참하게 건드려 버린 실수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말이 내 입을 빠져 나가고 난 다음이었던 것이다 “감색 무늬 있는 부라우스를 입고가 언니한테 잘 어울릴 걸, 날도 더워졌고……”

미처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나는 언니의 싸늘해진 얼굴을 올려다 보며 아차, 싶었던 것이다.

언니의 옷 중에서 유일하게 팔뚝이 드러나게 되어있는 감색 부라우스는 입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 × ×

그 일이 있던 것은 정확하게 18년 전이었다.

그러나 어떤 한가지 일이 20년이 다되도록 그 자취가 사라지지 않고, 사라지기는 커녕 더욱 또렷하고 크게 그 상처를 남긴것은 확실히 잔인한 일이었다.

더구나 흉한 문신 처럼 언니의 몸 안에 남아 있는 그 흔적은 사춘기를 지나고 성숙한 여인이 되기 까지 마음에까지도 모진 슬픔을 안겨 주며 함께 자라왔던 것이었다.

아직 우리 집으로 옮겨 오기 전 까지 언니네는 “龍窩”이라는 이름 처럼 아름답고 깊은 시골에 살고 있었

고 언니의 아버지는, 그러니까 나로서는 작은 아버지가 되는, 근처의 면사무소에 다니셨는데 생활은 좀 곤궁했던 모양이었다.

게다가 90이 넘어 노망기까지있는 할머니는 자주 엉뚱한 사건을 벌였고 그해 겨울 당신의 방에는 불도 놓아 주지 않아서 냉방에서 얼어 죽을 뻔했다는 무덤과 함께 처마에 성냥불을 그었던 것이다.

불은 순식간에 대들보아 썩까래를 싸안으며 번져서 마른 초가 지붕은 금방 불기둥이 되었다고 했다.

마을에 갔던 작은 어머니가 달려들어와 전너방에서 까무라칠듯 울어 대는 여덟살난 언니를 껴안고 나왔을 때 방문턱을 기어 올라서 어느새 불길은 작은 어머니의 치마폭까지 날름 날름 타고오르고 있었다 한다. 다행히 마을 사람들이 달려들어 일찍 불길은 잡았지만 시커멓게 타다남은 집은 귀신이 사는 데 같기만 하더라고 지금도 얘기 하시곤 한다.

병원이 멀어 그날밤을 외가에서 뜬눈으로 새며 피부가 타들어 가는듯 울어대는 언니를 달래며 작은 어머니가 쏟았다는 눈물은 또 얼마였을까.

멀리서 산짐승 우는 소리가 들려오고 계곡을 활아 내려가는 바람 소리 마저 매설기만한 그해 동짓달과 섯달을 언니네는 우리집에 가까운 곳에 방을 얻어 지내며 아무리 담요를 끌어 올려도 몸과 마음으로 파고 들었을 그 냉기를 고스란히 당해냈던 것이다.

언니의 여고 시절 적의 별명은 씩스름하게도 “우수의 女人”이었던단다. 왼쪽 어깨로 부터서 뒷 팔꿈치까지 긴 뱀이 칭칭 감고 있는듯 징그럽고 흉하게 주름이 진 화상을 감추느라 한여름에도 혼자서만 긴 팔의 교복을 입고 말 없이 다닌대서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었던 것이다.

지방의 초급 대학을 다니면서 언니는 몇번 미팅도 하고 단연 인기를 끌었지만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한번도 연애를 해 본 경험은 없었다. 늘 언니 쪽에서 먼저 몸을 사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만하면 오히려 돌아와 문을 닫고 어둠신한 자기의 방에 틀어 박혀버린 때문이었다.

가장 밝고 구김 없이 꿈과 낭만에 부풀어 올라야 할 시절을 언니는 이 처럼 아무도 모르는 외로움 속에서 숨죽여 살아냈던 것이다.

그렇게도 기대를 하였지만 언니의 맞선은 역시 깨어

지고 말았다. 신랑될 사람도 언니를 흠족해하고 더 할 수 없이 부드럽고 좋은 분위기였었다 하는데 문제는 언니쪽에 있었다.

찾집에서 마주 앉았을 때 언니는 그만 설탕을 즐즐이 흘리고 말았다 한다.

알른 알른 비치는 옷 사이로 드러날지도 모를 그 흉터에 언니는 진땀을 내고 있었던 것이다. 지나친 긴장 때문일 것이라고 권사님네 쪽에서는 오히려 순진한 처녀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커피를 들어 올리면서는 숫제 덜덜 떨더니 마침내 바닥에 찻잔을 떨어뜨리는 소동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고 생각되었던지 그쪽에서는 그제서야 찬찬히 언니를 다시 뜯어보며 의심하는 눈치더라는 것이었다. 언니는 더욱 당황할 수 밖에.

그리하여 “커피잔하나 들지 못할 만큼 어딘가 몸이 몹시 불편한 곳이 있는 모양”이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아픈 곳이 어디냐고, 숨기지 말고 말해보라고 몇번씩이나 물어 왔을 때 언니는 참지 못하고 다방을 뛰쳐 나와 버렸다는 것이었다.

정자야, 난 그냥 꽃이나 가꾸면서 혼자 살란다.

언니는 가끔 그런 말을 한다. 속도 모르고, 아는 사람들은, 좋은 자리가 있다고, 그만 고르고 이제는 그만 시집을 가라곤 타일러 오곤 하지만 언니는 그때마다 그지 조용히 웃어버리는 것이었다.

이미 가슴 속에 무서운 체념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나이의 다른 처녀들과는 달리 언니는 바느질 솜씨가 아주 좋았다. 언젠가 밖에서 돌아 오니 언니는 푸새한 옥양목 이불 홑청을 꾸미고 있었다.

옥양목의 그 눈부시게 고운 색깔은 그러나 그대로 언니의 슬픔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만 같아서 나는

그렇게 자꾸만 스스로를 처연하게 만들어 가는 언니에게 화가나서 일감을 모두 밀어 제쳐 놓고 막 때들다가 함께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다.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니, 나 보고…” 언니는 가끔 한숨 처럼 그런 말을 한다.

언니의 그 말 만큼 나는 가슴 아프게 만드는 말은 없다.

“어떻게 하긴, 다리 병신도 술집 여자들도 시집 가서 잘살고 몇번씩 이혼한 여자도 다시 시집 가서 보란 듯이 잘만 사는데 왜, 뭐가 어떻다고 유별나게 야단이야!”

그렇게 얘기 했다가도 나는 곧 나쁜 경우에만 언니를 빗대어 이야기한 게 미안해져서 입을 다물어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가끔 추운 겨울 밤 밖에서 요란한 경적과 함께 불자동차 달리는 소리라도 들려 오면 언니는 마치 어린 아이 처럼 금방 무서움과 불안함으로 얼굴이 굳어져 버리곤 한다. 너무도 놀랐던 어린 날의 기억이 스물스물 되살아나는 것이리라. 그럴 땐 차마 딱한 생각에 고개를 돌려 버리곤한다.

거리를 지나다가 우연히 화재의 현장이라도 목격하게 되면 나는 시뻘건 혀로 넘실거리는 불길 속에서 까물어치게 울어대는 20년 전의 언니의 울음 소리가 들려 오기라도 하는 것 같아 소름이 끼치곤 한다.

그렇다.

불은 이미 20년전에 한채의 조그마한 초가를 태우다가 꺼지고 말았지만 한 가냘프고 고운 여자의 마음 속에서 무서운 상처로 20년이 넘도록 어둡게 남아서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타고르고 있는 것이었다.

소방차인들이 이 검은 그림자를 날려 버릴 수는 없으리라. \*